

설문조사 기여입학제, 학사경고제에 대한 독자인식도

'황금'으로 일룩질 배움터

본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여입학제'와 '학사경고제'에 관한 독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와 교직원 및 학생 3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양캠퍼스 학생을 각각 100명씩 무작위로 추출, 이들을 실제 통계처리가 가능한 데이터는 189명이었으며 교직원 및 교수의 경우도 각 캠퍼스에서 50명씩 무작위로 추출, 이들을 57명만이 통계처리가 가능하였다.

I. 들어가는 말

한국에 있어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라거나 진리의 상아탑이라 불릴만큼 그리 순조로운 역사를 가지는 못하고 있음은 그야말로 험난했던 한국사회의 역사를 단편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언제나 그랬듯 사회가 부패하고 부도덕이 만연할때 그 사회를 비판하고 발전적인 사회를 제시했던 자들은 다름 아닌 학생이었다. 이는 현사회에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학생들이 대학에서 학문연구에만 전념하거나 또는 진리의 탐구를 위해 열정을 바치는 것 보다는 사회의 모순을 파헤치고 올바른 정치의 부재를 파헤치고 고안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하나의 법, 하나의 제도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전제가 뒤따라야 한다. 다시말해서 대학사회의 각종 폐단을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라면 이는 당연히 대학사회의 여론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된 각 대학의 입시부정사건은 이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어야 할 대학이 이제는 제갈길이 어딘지조차 모를 정도로 황폐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대학정년'의 해소책으로 '기여입학제' 실시를 적극 검토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정충리 사건 이후 학사경고제 부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는 많은 논의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II. 기여입학제

(1) "기여입학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학생은 ① 조금 알고 있다(41.8%) ② 어느정도 알고 있다(38.6%)고 응답하였고 교수 및 교직원은 ① 26.3%였으며 ② 43.9%의 응답율을 보였다.

(2) "기여입학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학생이 ① 그저그렇다(21.2%) ②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45.6%)고 한 반면 교수 및 교직원은 ② 81.5% ③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45.6%)고 함으로써 학생 대

학생들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교수 및 교직원은 ③ 36.8%를 나타내었다. 다시말해서 학생들은 물질만능주의를 심화시켜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교수 및 교직원은 사립학교의 재정난 때문에 기여입학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4) "기여입학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이라는 문항에서 1순위와 2순위를 조사한 결과 학생에 있어 1위는 ① 정원의 입학생 기부금으로 재학생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하였고 2위가 ② 학교시설

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교수는 1위로 ② 학교시설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였고 2위로는 ③ 국고보조 1%로는 사립 재정난을 타개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학생들은 대부분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만일 이 방안이 도입된다면 장학금이나 학교시설에 보충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었고 교수 및 교직원들은 특히 사립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엿볼 수 있다.

(5) "기여입학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이라는 질문에 대해 학생은 ① 교육의 본질인 공평성이 파괴되어 사회가 황폐화되기 때문이라 1위로 ② '富貴 貴益' 현상을 심화시키기 때문이라 2위로 선정 하였다. 이는 교수 및 교직원에게 있어

다(8.5%)고 하였으나 교수 및 교직원의 경우 ② 대체로 만족한다(43.9%) ③ 그저그렇다(31.6%)고 함으로써 많은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즉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장학금이므로 실제 장학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7) "본교의 학교시설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문항에서 학생은 ① 만족하지 않는다(79.9%) ② 대체로 만족한다(4.8%) ③ 그저그렇다(14.8%) ④ 매우만족한다(0.5%)고 한 반면 교수 및 교직원의 경우 ① 만족하지 않는다(47.4%) ② 대체로 만족한다(28.1%) ③ 그저그렇다(22.8%) ④ 매우 만족한다(1.8%)는 응답율을 보였다. 학생의 대부분이 학교시설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있으나 교수 및 교직원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에 학생은 ① 그렇지 않다(32.3%) ② 기여입학제 실시이전과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42.3%) ③ 그저그렇다(24.3%)고 한 반면 교수 및 교직원은 ① 그렇지 않다(19.3%) ② 기여입학제 실시이전과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17.5%) ③ 그렇다(56.2%)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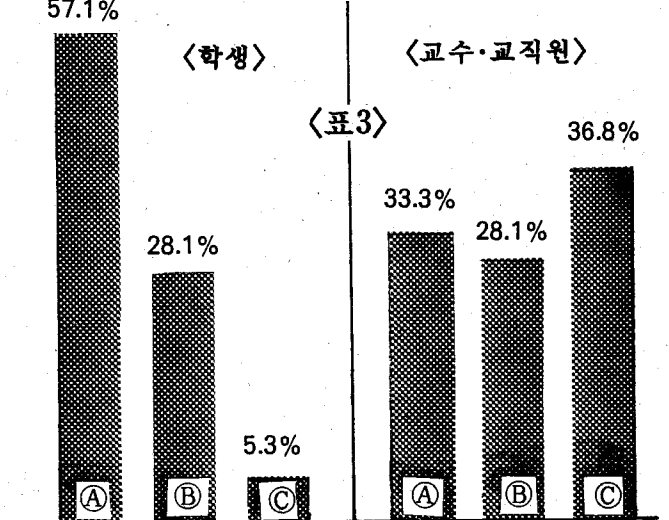
III. 학사경고제

(1) "학사경고제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학생은 ① 잘모른다(21.7%) ② 조금 알고 있다(50.3%) ③ 알고 있다(23.3%) ④ 많이 알고 있다(4.8%)고 하였고 교수 및 교

직원은 ① 잘모르겠다(5.3%) ②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80.7%) ③ 그저그렇다(7.0%) ④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7.0%)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교수 및 교직원들이 이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표명하고있다고 할수있다.

(3) "학사경고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서 학생은 1순위로 ① 학생들의 학문연구를 위해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45.6%)고 하였고 2순위로 ② 학점따기식 교육이 되므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를 선정하였다. 이는 교수 및 교직원도 1순위에 있어서는 공동수위를 ①로 선정하였으나 ③ 교육공포의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를 2위로 선정된 점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즉 학생들은 '어느정도'는 학사경고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학점따기식의 교육등 이 제도가 수반하는 많은 문제점을 따라 불필요하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반면 교수 및 교직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강조하고 있다.

(4) "학사경고제에 찬성하신다면 그 이유는"에서 학생의 경우 1순위는 ① 학문공포 해소를 할



기여입학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물질만능주의 심화로 불필요
② 학생복지혜택 위해 어느 정도 필요
③ 사립재정난 해소 위해 필요

이러한 한 반면 교수 및 교직원은 ② 학점위주의 교육보다는 전인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15.8%)를 1위로 ③ 학점을 취득하기 쉬운 특정 교양 과목만을 수강하기 때문에(10.5%)를 2위로 선정하였다.

이는 정충리 사건이후 학생들을 '폐류' 내지 '폭도'로 규정, 외대생들에 대한 학교행정 조치를 시발로 한 '학원안정화 방안'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현시점이 많은 논의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예를들어 '학사경고제 폐지'가 87년 6월항쟁이후 '학원자유화 조치'에 따른 것이라면 '학사경고제'의 부활은 학원자유화조치를 위

IV. 문항간의 상관관계

(1) 학생
'기여입학제에 대한 인지도'와 '이의 필요성'에 있어 (r=0.5989 P<0.001)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할수록 이 제도는 물질만능주의를 심화시키므로 불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여입학제에 대한 인지도'와 '이의 도입으로 보다는 대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문항에서 상관성을 살펴볼 수 있는바(r=1.5427 P<0.001)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할수록 이 제도의 도입이 더 나은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 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역으로 이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할수록 더 나은 대학생활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증가한다고 할수있다.

결론적으로 '기여입학제에 대한 인지도'와 '학사경고제에 대한 인지도'에서(r=0.4308 P<0.001) 알 수 있듯 기여입학제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인식할수록 학사경고제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 앞서 지적했듯 대다수의 학생은 기여입학제나 학사경고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직원
또한 '기여입학제에 대한 인지도'와 '이의 필요성'에 있어 (r=0.5989 P<0.001)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할수록 이 제도는 물질만능주의를 심화시키므로 불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이의 도입으로 보다는 대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문항에서 상관성을 살펴볼 수 있는바(r=0.5427 P<0.001)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할수록 이 제도의 도입이 더 나은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 할 것이다. 역으로 해석하면 이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할수록 더 나은 대학생활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기여입학제에 대한 인지도'와 '학사경고제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 (r=0.3764 P<0.01) 바람직하다고 생각할수록 학사경고제에 대한 필요성도 역시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바 대체로 교수 및 교직원은 기여입학제나 학사경고제를 학생들보다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나오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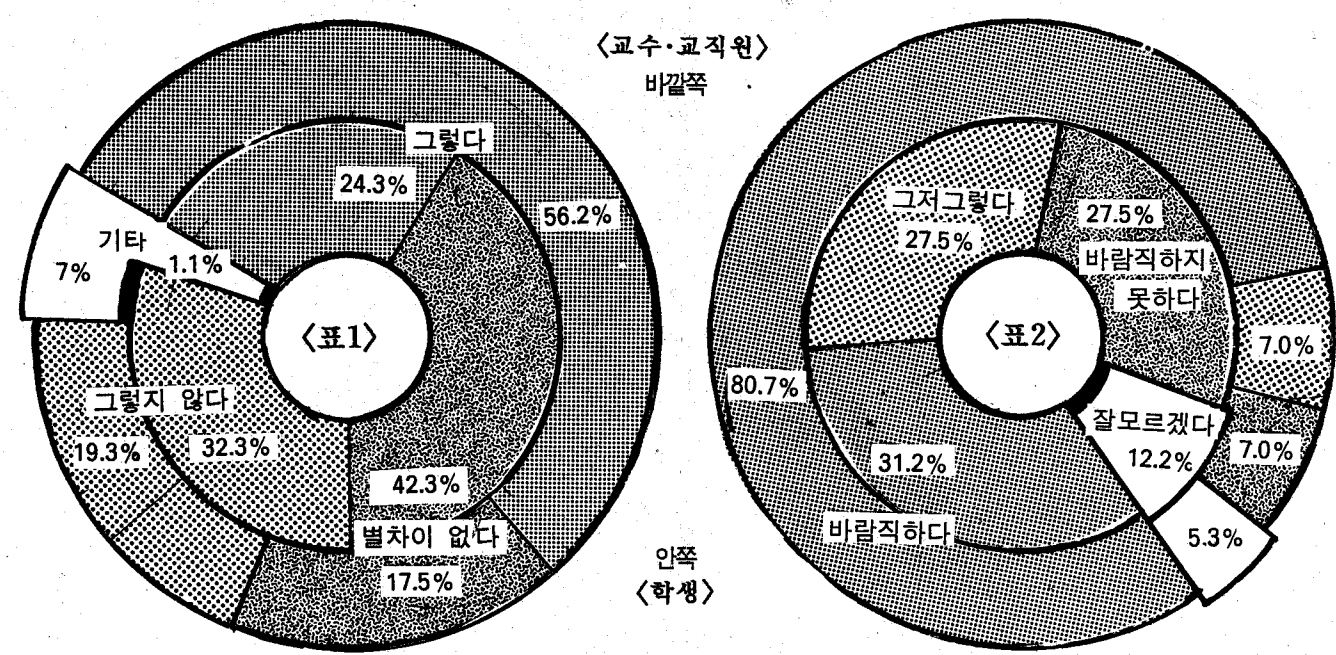
올바른 정치의 부재는 대중을 동맹하게 만들기 위한 각종 수단을 쓰기 마련이다. 바른 사회를 원한다면 자들이 오히려 부도덕하고 민주를 원한다는 자들이 오히려 비민주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는 현실.

근래 논의되고 있는 기여입학제가 사실상 고질적인 사회제단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경제적인 부를 가진자가 대학입시의 합격증을 따는 부정적인 의미로 대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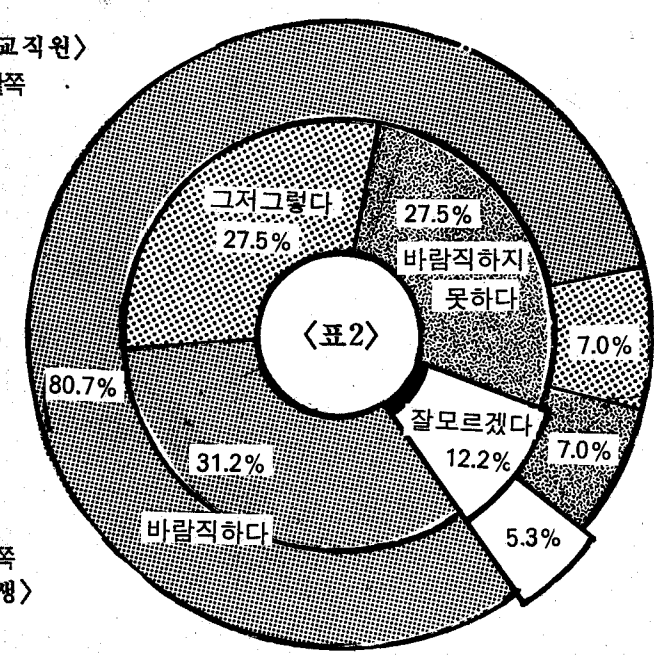
따라서 아무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 해도 그것은 전사회계층에게 골고루 이익이 배분될때만이 참다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특정층을 위한 정책은 대다수 계층을 소외시키기 마련이며 이전의 계층간의 갈등을 감소시키기도 전에 더 큰 사회적 계층간의 갈등을 파생시키게 된다. 본조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기여입학제'나 '학사경고제'가 대학사회 문제의 해결방안이라고 인정하기전에 이에대한 충분한 여론수렴이 선행되어야 할것이다.

(시사여론부)

교직원 사립재정난 해소위해 기여입학제 찬성 학사경고, 바람직 (31.2%) 바람직못함 (27.5%) 학생



기여입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학사경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컴퓨터 및 주변기기·생활용품 특판전은 유니콥추진위원회가 대학복지운동 차원에서 매년 2회씩 개최하는 정기구판행사로서 서울에서는 금년도 마지막 행사이며 금성사, 대우통신, 큐닉스가 협찬합니다. 본행사에서는 대학인들이 컴퓨터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주변기기 및 각종 소프트웨어 등을 소비자가격의 20~60% 할인 판매합니다.



기간: '91. 9. 13(금) ~ 20(금) 8일간

장소: 유니콥센터 문화관

주관: 유니콥추진위원회 문의전화: 유니콥센터 (02)764-8200

유니콥센터는 서울 동숭동 대학교 마로니에공원 뒷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금성사 A/S 및 교육지원: 금성중앙시스템

금성사	
GDC-212M72H	1,557,000원~1,150,000원 (AT/12.5MHz/1MB/40MB/14" VGA COLOR MONITOR)
마티스 386SX	2,200,000원~1,380,000원 (386SX/16MHz/1MB/40MB/14" VGA COLOR MONITOR)
마티스 386SX PLUS	2,750,000원~1,750,000원 (386SX/20MHz/2MB/40MB/14" VGA COLOR MONITOR)
GMC-8347SB	5,280,000원~2,112,000원 (386DX/25MHz/4MB/40MB/14" VGA COLOR MONITOR)
PRT-2750	430,000원~330,000원 (DOT PRINTER/80COLUMNS)
PRT-3950	1,210,000원~850,000원 (DOT PRINTER/136COLUMNS)
GMC-4046D	1,870,000원~880,000원 (LAPTOP/12.5MHz/640KB/40MB)
마티스 노트	2,730,000원~2,420,000원 (386SX/20MHz/2MB/40MB)

대우통신	
PRO-3000	1,375,000원~880,000원 (AT/12.5MHz/1MB/40MB/14" FLAT MONITOR)
PRO-3016	1,600,000원~1,100,000원 (AT/16MHz/1MB/40MB/14" FLAT MONITOR)
PRO-5000S	2,035,000원~1,331,000원 (386SX/16MHz/2MB/40MB/14" FLAT MONITOR)
PRO-5020S	3,050,000원~1,700,000원 (386SX/20MHz/2MB/40MB/14" FLAT MONITOR)
PRO-5025S	4,680,000원~3,410,000원 (386DX/25MHz/4MB/40MB/14" FLAT MONITOR)

큐닉스컴퓨터	
OMNI-6700A	990,000원~880,000원 (AT/10MHz/640KB/20MB/14" FLAT MONITOR)
OMNI-286	1,705,000원~1,100,000원 (AT/16MHz/1MB/40MB/14" FLAT MONITOR)
OMNI-386SX	2,640,000원~1,884,000원 (386SX/16MHz/2MB/40MB/14" VGA COLOR MONITOR)
OMNI-386DX	4,930,000원~2,860,000원 (386DX/25MHz/4MB/80MB/14" VGA COLOR MONITOR)
QP-180	640,000원~330,000원 (DOT PRINTER/80COLUMNS)
QP-2100	1,155,000원~880,000원 (DOT PRINTER/136COLUMNS)
QP-2700	1,200,000원~820,000원 (DOT PRINTER/136COLUMNS)
QLBP-430	1,960,000원~1,575,200원 (LASER PRINTER/300DPI)

주변기기 및 생활용품
컴퓨터주변기기/코펜다아템(다스켓보안기 소프트웨어)
오도/한국산 SHARP, 백산전자 BOOM BOOM
카메라/삼성향 MINOLTA, 동원광학 PENTAX
문구 및 필기/신화사 PILOT, 정우광학 PENTACOR
스포츠 용품/대준스포츠 JACKAL, NASSAU
기타/한국전자 DYNATONE, 삼성사 KAPPA, PRIME
금강재 TOTAL FASHION, 코레스 COREX